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모두발언(12.31.)

- 금년도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오늘 발표된 12월 소비자물가는 2.3% 상승하여
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.
- 그러나,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떡거리와 석유류의
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.
 - *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5.1/4) 2.1 (2/4) 2.1 (3/4) 2.0 (10) 2.4 (11) 2.4 (12) 2.3
 - ** 12월품목별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전체)2.3 (농축수산물)4.1 (가공식품)2.5 (외식)2.9 (석유류)6.1
- 더 한층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.
- 정부는 국민 모두가 “따뜻하고 안전한 겨울”을
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[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]

- 먼저,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
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,
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.
-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금액*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
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정액패스(모두의 카드)를 1월 1일부터 출시하고
학생과 산단근로자 대상 '천원의 아침밥'을 대폭 확대**하겠습니다.

* 예) 수도권 일반형 기준 6.2만원(청년어르신2자녀 5.5만원 3자녀저소득 4.5만원 등) 초과 이용분 전액 환급

** (25년) 대학생 450만식, 산단근로자 5만식 → (26년) 대학생 540만식, 산단근로자 90만식

-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파악하겠습니다.
-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*하고 연탄보일러 난방시설 교체도 적극 지원(‘26년 3천가구)하겠습니다.
- * 장애인·유공자·기초생활수급자 대상 (전기) 월 최대 1.6만원 (가스) 가구당 월 14.8만원
-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(월 40만원, ~’26.3월)하고 방문과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
- 단전, 단수, 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(~’26.3월)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- 겨울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해님이·해맞이 행사 관련하여 ‘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’을 지정(~’26.1.4.)하고 정동진, 광안리, 간절곶 등 9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.
- 내년 3.15일까지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의 블랙아이스(도로 살얼음)와 폭설에 대비하겠습니다.
- 전국의 소방관서가 내년 2월까지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가고 설 명절에 대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(69곳) 안전점검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한랭질환 예방점검도 실시(~’26.1.30)하겠습니다.
- 이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내수 활성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.
- 오늘 종료 예정인 동남아 등 6개국*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방한관광 붐업을 이어가고,
- *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캄보디아, 중국
- 조만간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- 다음으로 복지부 장관님께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(복지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